

“주부근로자를 모십니다” 工場 탁아시설치 경쟁

九老등 20여곳 무표양정

봉제업체 많아 회사 가까운 시설 말기기도

올해들어 다묘직종근로자 설되어가고 있다. 이들 주부근로자들을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업무를 내지 못했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는 가운데 직장내에 무표탁아소를 설치, 회사가 근무시간중 주 부근로자들의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구로공단 仁川공단 등 주요공단지역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주부근로자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직장내 함께 출퇴근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삼공사 광주제조장 등이 대표 적인 회사들이다. 대부분 의류제조업 방직업 체들이 이들 회사들은 현재주 부근로자들이 없으면 정상작 업이 불가능한 만큼 주부근로 자수가 많은 회사들로 자체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하고있는 것.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평균 40~50명을 수용할수있는 탁 아시설을 갖추고 유아전문 교사까지 두고있어 일반 탁 아소나 유아원에 비해 교육내 시북구 鶴田 등에 맡겨 돌보

음도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들 회사이외에 사업규모 가 작은 영세제조업체들은 주 부근로자들의 자녀들을 회사 와 가까운 공동탁아시설에 위탁해 돌봐주고 대신아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도 한다.

仁川시북구 鶴田 등에 위치 한 봉제업체인 범화산업과 태고무역은 주부근로자의 자 녀 20명씩을 仁川YWCA가 운영하던 시범탁아소(仁川 시북구 鶴田)에 맡겨 돌보

이들 회사이외에 사업규모 가 작은 영세제조업체들은 주 부근로자들의 자녀들을 회사 와 가까운 공동탁아시설에 위탁해 돌봐주고 대신아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도 한다.